

松隱 安昌濟의 挽詩에 나타난 ‘在滿’ 유림의 표상

한길로*

- I. 서론
- II. 『松隱遺稿』 소재 만시의 개황과 대상 분석
- III. 만시에 나타난 재만 유림의 삶과 죽음의 표상
- IV. 결론

국문초록

경남 의령 출신의 근대 유림 松隱 安昌濟는 1910년 11월, ‘차라리 길가에서 죽겠노라.’는 결심으로 만주 이주를 택하여 柳河縣으로 향했다. 이후 약 22년간 만주 일대를 전전했던 ‘遼東逋士’ 안창제와 그 일가족의 삶은, 만주 사변 이후의 혼란 속에 발생한 兵禍와 함께 비극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만주’라는 공간은 그의 삶과 문학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의 시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바로 ‘挽詩’였다. 즉 만시는 그의 시 세계의 중요한 중심 축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대다수의 시적 대상은 만주로 이주했던 유림들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 인물들의 출신지와 학문적 경향이 균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오랜 시간 반목과 갈등 속에 있었던 한국 유림의 각진

* 길림대학교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 philosmind@jlu.edu.cn

영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서로 會晤하여, 함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던 일면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만시의 대상 대부분이 만주에 머물던 ‘이산인’이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客死’를 의미했다. 다만 안창제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이역에서 고독한 생을 이어가다 삶을 마감한 이방인의 작고로만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을 크게 ‘절의를 위한 遺臣의 죽음’, ‘독립을 위한 儒將의 죽음’, ‘학문 전수를 위한 儒者의 죽음’으로 표상화했다. 특히 고인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지양하고 그들의 삶과 지취를 주시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시어를 통해, 그들의 죽음이 내포한 내·외적 의미를 온전히 또 분명히 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요컨대 그의 만시는 당시 재만 지역 한인 유림의 다양한 삶의 방향과 의절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며, 근대기 만시에 대한 주목을 환기시키고 있다.

◆ 주제어

송은 안창제, 『松隱遺稿』, 만시, 재만 한인 유림, 근대 한문학.

I. 서론

19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이른바 ‘西勢東漸’으로 상징되는 ‘근대전환기’¹⁾로 접어들며 기존의 유학적 세계관의 입지는 대단히 위축되었다. 중화 중심의 ‘천하’가 점차 ‘세계’라는 새로운 체제 속에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小中華’로 규정했던 조선 유림들의 가치관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시기의 한국 유교는 사실상 기로에 서며 재분화하게 된다. 이에 지역 기반의 각 학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실행해 나갔다.²⁾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든 당시 국내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는 형세로 전개되었고 유교는 점차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으로 나아갔다. “시국의 대세는 蒙然히 불찰하며 실업의 신학은 반대로 誣斥하고 陳腐無用한 고인들의 糟粕을 膠守牢執하여 일종의 頑述이 죽음이 닥쳐도 불변이니 이 또한 가련하도다.”³⁾와 같은 사회적 비판 수위도 높아져 갔다. 특히 1905년 이후 일제의 강제지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국내 유림은 한국 유학의 맥을 잇고 유학자로서 ‘自靖’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에 직접 대응해 나갈 장소를 모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장소로 낙점되어 국내의 유림들이 결집한 공간은 바로 ‘만주’일대였다. 이로부터 이곳은 한국 유림의 역량이 결집되는, 매우 ‘역동’적인 장소로 변모했다.

본고에서 거론하려는 경남 의령 출신의 근대 유림 松隱 安昌濟(1866~1931)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만주로 이주했다.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1월, 그는 ‘차라리 길가에서 죽을지언정 의리상 원수들과 같은

1) 본고에서의 근대전환기는 19세기 중·후반에서 일제 강점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술되었음을 밝힌다(김형석 등 5명, 「근대전환기 한국 종교·미학의 성찰과 전망」, 『인문학연구』 5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68쪽).

2) 이는 크게 ‘위정척사의 기치를 유지하는 것’과 소위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유학을 근대적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로 구분할 수 있다(조광, 「개항 이후 유학계의 변화와 근대적응 노력」,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118쪽).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은거를 택하거나 송은처럼 해외로 이주하는 대응도 발견된다.

3) 『皇城新聞』 “警告儒林”, 1905.09.15., 2면.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결심으로 약 삼천리 가량 떨어진 이역의 땅 만주 柳河縣으로 향했다.⁴⁾ 이후 약 22년간 일가족과 함께 만주 일대를 전전했던 “遼東逋士”⁵⁾ 안창제와 그 일가족의 삶은, 만주 사변 이후의 혼란 속에 발생한 兵禍 속에서 비극적으로 종료되었다. 현재까지 안창제와 관련된 연구는 시작단계에 놓여있다.⁶⁾ 우선 이는 오랜 이역 생활과 만주사변 이후 예상치 못한 혼란 속의 급사로 인해 그의 저작이 遺稿로 전해지는 것과 연결된다.⁷⁾ 동시에 그가 동시기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毅庵 柳麟錫(1842~1915)이나 韓溪 李承熙(1847~1916)처럼 큰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도 관계된다. 또한 조선 말기에 承文院 副正字·持平·正言 등을 거치며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준 그의 형 守坡 安孝濟(1850~1916)의 그늘에 가려진 측면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안창제의 삶과 문학 또한 대단히 유의미한 면모를 담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며 문학적 연구 대상이다. 19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명망 있는 유림들의 죽음과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만주에 머

4) 李憲柱, 『松隱遺稿』 卷3, 〈墓誌銘〉, “庚戌國亡則公尤痛不欲生曰: 吾寧死於道路, 義不可與讐人共戴天日也! 即日率妻孥, 北走滿洲三千里.” 참고로 저본과 원문은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 게재된 것을 활용했다.

5) 遼東逋士는 1936년, 안창제의 사후 5년 만에 그의 유체가 고향 의령으로 반장되었을 때 지역의 士友들이 銘旌에 題한 문구이다(李憲柱, 위와 같음, “乃題其旌曰: 遼東逋士, 遼近士友禮以送之”).

6) 안창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그의 망명 전후의 내면과 현지에서 만난 인물들과의 교류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이은영, 「송은 안창제의 서간도 망명시 연구」,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495~525쪽, 한길로, 「松隱 安昌濟의 在滿 시기의 이거와 교류시 고찰」, 『영남학』 8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a, 287~316쪽).

7) 金梶의 「墓碣銘」과 李憲柱의 「墓誌銘」에서는 안창제의 죽음이 이른바 ‘만보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당시 만보산 사건에서 한인의 큰 피해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는 같은 해 일어난 만주사변과의 착오로 판단된다. 반대로 「行狀」의 “滿洲之亂, 清兵驅日人並鮮人而殺害之”와 「松隱遺稿序」(成純永)의 “卒爲滿洲敗殘亂兵, 所害父子”와 같은 언급은 만주사변 이후 한인들이 무차별적 피해를 받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行狀」은 안창제의 사망일을 “辛未(1931)八月十三日也”라고 기술했는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만주사변이 발발한 직후인 9월 24일이다(한길로, 앞의 논문, 301쪽).

물던 상다수의 유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⁸⁾ 하지만 안창제는 ‘천지에 陰이 가득하여 陽이 완전히 없어진 현실에서, 누가 大綱常을 부축해 세울 수 있을지’를 탄식하면서도, “옛 사람의 지혜는 극한 처지라야 보인다.”며 자신만이라도 그곳에 남아 학문 본연을 궁구하며 진력하고자 했다.⁹⁾ 그러하기에 20년이 넘는 만주 체험을 담고 있는 그의 문학은 1세대 이민자들이 떠난 뒤인 1920년대 재만 한인 유림의 삶까지를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게 만든다. 특히 함께 이역 만주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 문인들을 향한 안창제의 挽詩는, 작자 개인의 서정과 함께 근대기 ‘在滿(韓人) 儒林’¹⁰⁾의 삶과 죽음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즉 근대기에 창작된 만시의 특수한 일면과 함께 당대 재만 유림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표상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필자는 안창제의 만시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동시에 1910~1920년대 만주라는 ‘객지 아닌 객지’에서 苦鬪하던 재만 유림의 ‘안과 밖’을 보다 다양하게 조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8) 대표적으로 서천 조정규·도암 정돈섭·서주 김사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국내 복귀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한길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b, 155~180쪽).

9) 『松隱遺稿』 卷1, 〈歎世(九首)〉, “(其六)天地窮陰剝盡陽, 誰能扶立大綱常. … (其八)捨生猶易立功難, 從古人謀極處看.” 시 번역의 일부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이은영, 앞의 논문, 519쪽).

10) 본고에서 말하는 재만(한인) 유림은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 일대에 머물며 독립운동 및 공교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유자로서의 자정을 도모 하다 생을 마감했던 유림계 인사의 총칭을 의미한다.

II. 『松隱遺稿』 소재 만시의 개황과 대상 분석

1931년 만주사변의 참화로 일가족이 살해된 그의 최후로 인해, 1966년 간행된 『松隱遺稿』(3권 1책)에 수록된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하기에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 더 많은 집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권 1에 수록되어 있고 총 64제 89수가 전하는데 세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주에서 창작되었다.¹¹⁾ 그의 시는 크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자술과 교유시 그리고 만시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만시는 시제를 기준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총 26제 34수로 나타났다.¹²⁾ 즉 만시는 그의 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詩體임을 알 수 있다.

안창제의 문학에서 만시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가 여타의 문인들에 비해 만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의 죽음을 더욱 많이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적 대상이 된 그들은 이주한 한인 유럽이 대다수였는데, 이주 당시 그들 대다수가 노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고가 늘어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만시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면서 ‘喪禮’와 연결된 관습이었기에 의례의 차원에서조차 창작이 불가피했다. 즉 본래 무과에 급제한 그가 “罔僕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왔기에 시 창작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망자와의 인간관계와 당대의 상례를 고려했을 때 만시 창작을 기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¹³⁾ 즉 만시

11) 이은영, 「20世紀初 儒教知識人の 亡命과 漢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03쪽.

12) 『松隱遺稿』 卷1에 수록된 만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교유시는 21제 31수이다 (한길로, 앞의 논문, 2022a, 302쪽).

晩求李先生挽 / 遙挽南素窩廷燮(二首) / 挽李大溪承熙 / 追挽黃梅泉琮 / 挽金義士道鉉 / 挽柳毅菴麟錫 / 伯兄卜葬後述懷 / 挽李弘窩斗勳(四首) / 挽權丈聖在 / 挽俛宇郭公鍾錫 / 挽趙西天貞奎 / 挽金鮮隱昌鉉(四首) / 挽李主事柱國 / 挽趙圓石孟善 / 挽梅難再從叔鐵 / 挽石蕉三從叔鉉 / 挽李石大 / 挽白溫堂三圭 / 挽池永善 / 挽朴華南長浩 / 挽李敬可愚 / 挽鄭芸圃隲 / 挽李耕齋建昇 / 輓金松川 / 輓宋恒齋鎬坤 / 輓夏靈峯先生震武(二首)

창작이 두드러진 것은 그곳 만주에서도 이어진 喪禮 전통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럼 만시의 대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상정된다. 만시의 대상은 모두 26명이었는데,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한주학과를 포함한 영남학과 계열의 인물들이 다수였다. 더불어 노사학과·강화학과·화서학과와 연관된 의병·고종 시대 무관·구한국 관료(왕실 종친)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국인 유학자도 존재했다. 인물들을 출신과 행적에 따라 구별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표1> 대상 인물 현황 (밑줄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인물)

구분	성명
영남(퇴계)학과 계열	李種杞, 李承熙, 金道鉉 ¹⁴ , 安孝濟, 李斗勳, 安鐵, 安鉉, 郭鍾錫, 趙貞奎, 金昌鉉 ¹⁵ , 李愚(李光世) ¹⁶ , 宋鎬坤 ¹⁷ .
노사학과 계열	南廷燮 ¹⁸ .
강화학과 계열	黃玆, 李建昇.
화서학과(의병) 계열	柳麟錫, 朴長浩, 李石大(李鎭龍), 趙孟善, 白三圭.
기타	金鍾洛 ¹⁹ , 李柱國 ²⁰ , 夏震武 ²¹ .
미상	權聖在, 鄭隲, 池永善.

13) 安和鎭, 『松隱遺稿』 卷3, 〈松隱序〉, “不得死則渡鴨而守罔僕之義.”

14) 金道鉉(1852~1914): 자는 明玉, 호는 碧山으로 경북 영양 출신의 유림이자 의병장이다. 을미사변 직후에 안동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여타의 부대는 ‘친일 내각의 퇴각, 단발령의 철회’ 등으로 1896년 5월경 해산했지만 그는 10월까지 항전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되자 즉각 상소 투쟁을 하였고, 이후 재차 의병을 조직하다가 대구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교육 사업에 힘쓰며 학교를 설립하였다. 1914년 부친이 사망하자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의 시를 남기고 바다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15) 金昌鉉(?~?): 호는 鮮隱, 본관은 善山이다. 고령 출신인 그는 점필제 金宗直의 14손으로 1892년 『估畢齋集』을 간행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봉천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했고 진주 道統祠의 贊成에 이름을 올렸다.

16) 李愚(?~?): 즉 李光世를 말한다. 자는 敬可, 호는 愚齋, 본관은 全義이다. 암서 조공섭과 수과 안효제 등과 교유했다(安孝濟, 『守坡文集』 卷2, 〈與李敬可光世〉, 曹兢燮,

위 인물 가운데 안창제의 스승 晩求 李種杞(1837~1902)를 향한 만시를 제외하고 모두 만주에서 창작된 작품이다.²²⁾ 대상은 크게 국내 인사와 재만 인사로 구분된다. 국내 인사로는 강제병합 당시 자결로 그 의기를 드러낸 梅泉 黃玟(1855~1910)과 영남 의병을 지휘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다 망국을 개탄하며 자결한 안동의 의병장 金道鉉(1852~1914)이 있다. 송은은 이들과는 직접 교류하지 않아 일면식은 없지만 그들의 안타까운 자결을 깊이 애도하고 의기를 기리기 위해 만시를 창작했다. 또 老柏軒 鄭載圭의 문인으로 의령 출신인 素窩 南廷燮(1863~1913)²³⁾·倂宇 郭鍾錫(1846~1919)·靖山 宋鎬坤(1865~1929)은 국내에 머물 때 알게 된 인물들이었다.

『巖棲集』 卷20, 〈三槐軒記〉, “友人李敬可, 過余于山中”).

- 17) 宋鎬坤(1865~1929): 字는 直夫, 호는 恒齋·靖山이다. 본관은 은진으로 함천에서 거주했다. 한주학을 수학했고 곽중석의 문인으로 파리장서에 서명했다. 문집 『靖山集』이 있다.
- 18) 南廷燮(1863~1913): 자는 章憲, 호는 素窩, 본관은 의령이다. 의령 출신으로 정재규의 문인이며 문집 『素窩集』이 전한다(『老柏軒文集附錄』 卷5, 〈門人錄〉).
- 19) 金鍾洛(?~?): 그는 고종 시기에 五衛將·摠禦營騎士將·高嶺僉使 등의 武官을 지냈다(『承政院日記』). 참고로 봉천총영사에서 발행한 정보 문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2」(발신일: 1912.10.05, 문서번호: 第582號)에는 義州憲兵隊의 命令으로 소위 排日韓人을 調査하기 위해 懷仁縣·輯安縣에 파견된 동명의 밀정이 확인된다.
- 20) 李柱國(?~?): 그는 왕실 종친으로 구한국관료를 지낸 인물이다(『松隱遺稿』 卷1, 〈挽李主事柱國〉, “宗親家裡有如公, 去國遺踪幾載同”).
- 21) 夏震武(1854—1930): 본래 이름은 震川, 자는 伯定, 호는 塗庵으로 절강성 항주 인근의 安吉縣 靈峰山 일대에서 태어났다. 1880년 과거에 급제하여 工部營繕司主事を 제수 받았다. 8국 연합국에 의해 베이징이 함락되고 和議가 결정되자 병을 핑계로 귀향했다. 이후 고향 절강성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尊孔을 주장했고 靈峰精舍를 열어 그곳에서 유학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문집 『靈峰先生集』이 전한다. 그는 송은과 교류했고 송은은 그의 문도들이 설립한 修學會의 東三省分會長을 역임했다.
- 22) 成純永, 『松隱遺稿』, 〈松隱遺稿序〉, “謁晩求李先生爲問學依歸.”
- 23) 『老柏軒文集附錄』 卷5, 〈門人錄〉. 1884년 정재규는 1897년 의령의 竹村草堂에서 강학하며 의령의 문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은 바 있다(김봉곤, 「嶺南地域에서의 蘆沙學派와 寒洲學派의 成立과 學說交流」, 『공자학』 14, 한국공자학회, 2007, 73쪽). 참고로 『송은유고』에는 1989년(戊戌) 그와 주고받은 편지 〈與南素窩章憲廷燮〉이 전한다.

상술한 인물들을 제외한 인물들은 개인 자료 및 시의 내용에 근거하여 만주 거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인물들의 주요 활동 및 생활 장소는 봉천(심양)과 안동(단동)일대였다. 1910~1920년대 봉천 일대에 거주한 인물은 李承熙·趙貞奎·金昌鉉²⁴⁾·金鍾洛²⁵⁾이었고 단동 일대에는 柳麟錫(寬甸縣)·李鎮龍²⁶⁾(寬甸縣)·李建昇(接梨村)²⁷⁾·朴長浩·趙孟善·白三圭²⁸⁾(柳河縣)가 활동했다. 安鐵과 安鉞은 안창계의 일가이기에 그와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權聖在·鄭隲·池永善 등은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모두 남만주 일대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들이었다.²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시적 대상은 고향 인근인 영남 일대 유림이 중심이 되었고, 다른 한 축에는 유인석을 연결고리로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대한독립단’ 인물들이 일면을 채웠다. 그 이외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만주 현지에서 만난 동지들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1910~1920년대 만주 지역 내 한인 유림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의 일면을 추정하게 만든다. 먼저 다소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대 재만 한인 유림 사이에서 이른바 ‘학파·문중·지역’과 같은 구분의 구속력이 과거에 비해 대단히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서의 문인이자 대한독립단의 도총재인 가평 출신의 박장호가 이역에서 만난 영남 인사 송은에게 독립운동 관련 자금을 국내에 보내는 일을 부탁한 예를

24) 『韓溪遺稿』 卷7, 〈年譜〉, “抵奉天西塔權教官丙文家, (注)金昌鉉高靈人, 佔畢齋胄孫, 權丙夏京城人, 成鍾護昌寧人, 李啓東來, 聞遼中多荒地可墾, 丙定久留之計.” (밑줄 필자)

25) 『松隱遺稿』 卷1, 〈挽金松川〉, “瀋陽旅舍晚來親.”

26) 鄭濟遇, 「李鎮龍 義兵將의 抗日武裝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76쪽. 참고로 송은은 그의 異名을 李石大로 표기했다.

27) 천병돈 「경제 이건승의 민족정신」, 『양명학』 40, 한국양명학회, 2015, 261쪽.

28) 참고로 이들 셋은 1919년 유하현 삼원포에 본부를 둔 대한독립단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송실사학』 45, 송실사학회, 2020, 194쪽).

29) 『松隱遺稿』 卷1, 〈挽權丈聖在〉, “居然南滿野, 那意就玄封.”, 〈輓池永善〉, “晚契殊方誠不偶, 那料一夕忽升天.”, 〈挽鄭芸圃隲〉, “餘生考德今何處, 南滿哲人自此空.”

상기해보면, 그들 사이의 신뢰 역시 대단히 두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요컨대 그의 만시 속의 인물들은 다양한 출신의 한국 유림이 만주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 힘을 모아 훗날을 도모하고 있던 당시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만주라는 공간은 한국의 유림들이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재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던 기지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만시에 나타난 재만 유림의 삶과 죽음의 표상

우리가 ‘만시’³¹⁾에서 주목할 지점은 한 인물의 죽음을 통해 그 인물이 일생동안 견지해 온 삶의 원칙과 가치를 부각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이상과 함께 이를 주목한 ‘화자’의 세계관이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즉 만시의 내용은 단지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과 지향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시는 당대인의 현실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³²⁾ 이런 배경에서, 송은의 만시는 근대 전환기 유림의 생과

30) 『松隱遺稿』 卷2, 〈祭華南朴公文〉, “今春邂逅于柴河堡, 語余曰: 吾今老矣, 百劫餘喘, 無意於世. 然此近所謂社會組織, 了無主管, 余不可不更盡殘力, 而當送人于內地, 運動巨貨.”

31) 타인의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적 현상의 경험과 연관된 만시는 ‘망자’를 애도하는 목적과 함께 그 망자의 부재로 인해 파생된 ‘자신’의 감정을 응시하며 이를 문학의 형식에 담는 것을 이룬다. 그러하기에 형식에 따른 규범성이 비교적 강하지만, 망자와 자신만의 특수한 기억을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주관성이 강한 문학 장르이다. 즉 관례로 이어진 보편적 형식을 취해야 하기에 다소 상투적인 면모도 내재되어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어 작자의 주관을 잘 확인할 수 있는 詩體라고 할 수 있다(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 동방한문화회, 2012, 116쪽).

32)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7쪽.

사 그리고 안과 밖을 포괄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역 만주에서 死生同苦했던 재만 한인 유림의 일생과 그들이 ‘이민’이라는 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념들이 黯然히 표출되어 있었다. 이는 곧 안창제의 만시가 갖고 있는 주요한 색채이자 특징적 면모였다.

그의 만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진솔과 죽음에 관한 표상은 일제에 대한 비타협과 저항의 의사를 ‘이주’라는 결행을 통해 드러낸 후, 마지막까지 그 절의를 다하며 지내고자 했던 ‘遺稿의 죽음’이었다. 먼저 가장 초기부터 만주 일대에 머물며 의병 활동을 이어간 의암 유인석의 만시를 살펴보자.

挽柳毅菴麟錫³³⁾ 의암 유인석을 애도하다.

經學家中善養正, 君讐爲報倡儒兵. 親喪未闋豈安意, 王事多艱不已行. 東敗當場非惜命, 西來餘意更圖成. 難回天意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	經學家 속에서도 ‘바름’을 잘 기르시어 임금의 원수를 갚고자 儒兵을 일으키셨지. 모친상 마치지 못하셨는데 어찌 마음 편하셨겠나, 왕사가 다난하여 이미 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지. 동쪽에서 패한 당시 전장에선 목숨 아끼지 않으시고 서쪽으로 가시어 남은 뜻을 다시 도모하여 이루고자 하셨네. 그 일신을 먼저 죽게 한 하늘의 뜻 돌이키기 어려울지니 길이 후세 영웅의 눈물이 갓끈 가득 적게 하리라.
--	--

1896년 의병을 해산한 그는 波猪江을 건너 懷仁縣에 도착한 뒤 심양으로 향하여 원세개에게 원병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通化에 정착했다.³⁴⁾ 1896년 당시 고종의 召命을 받은 유인석은 국경인 楚山에서

33) 『松隱遺稿』 卷1. 마지막 구는 두보의 <蜀相>의 시구 “長使英雄淚滿襟.”을 차용한 것이다.

34) 당시 그는 通化縣 五道溝에 임시 정착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선 유림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어 소중화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맹세를 이 땅에서 세운 것이다 (柳麟錫, 『毅菴集』 卷4, <因召命入疆至楚山陳情待罪疏>, “誓於此生, 復讎雪恥, 興復小中華而後已也.” (송기섭, 「

자신이 갈 수 없는 명분으로 상을 마치지 못한 ‘불효자’라는 점을 거론한 바 있었다.³⁵⁾ 이에 안창제는 유인석의 거위가 모친상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그의 선택은 난세를 맞은 당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결단과 같은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를 통해 한인 유림의 만주 이주에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유인석의 생을洞察하고 있는 안창제는 그의 삶이 보여준 가치를 ‘正’으로 상정하며 평하고 있다.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기보다 그의 생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글자를 시어로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³⁶⁾ 시의 말미는 을미사변 이후 약 20년간 의병을 지휘하다 1915년 요동 寬甸縣 芳翠溝에서 숨을 거둔 유인석을 애도하며 ‘君讐爲報’의 서원을 이루지 못한 그의 통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마지막까지 신하된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헌신했던 의암의 생애를 시 속에 담아낸 후, 남아있는 자신의悲感を 피력하였다.

이어서 살펴볼 작품은 동삼성한인공교회의 핵심인물로 당대 만주 지역 한인 유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韓溪 李承熙(1847~1916)를 애도하는 만시이다.

挽李大溪承熙³⁷⁾ 대계 이승희를 애도하다.

...

抗言討賊日, 역적과 일본 토벌을 항언하시어

의암 유인석의 亡命路程에서의 保華와 國權回復運動 고찰, 『의암학연구』 14, 의암학회, 2016, 155쪽 참조).

- 35) 柳麟錫, 위와 같음, “負此忠孝大罪, 何以立於天地. 何以舉顏見人, 其何以近光天門乎!”
- 36) 사실 안창제가 언급한 正이란 유가에서 말하는 정치의 근본이자, 스스로의 내면에 새기며 평생 실천해야 하는 유자의 근본과도 같았다(『論語』, 「顔淵」,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이에 송은은 유인석의 거병이 곧 正과 邪의 쟁투였고 그의 삶의 지향 역시 非와 似가 뒤덮인 현실을 正으로 치환하려는 것이었음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 37) 『松隱遺稿』 卷1. 한편 이승희의 『韓溪遺稿』 卷8 애도 안창제의 만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一夕奄升仙”이 “無就奄升仙”으로 수록되어 있고 이 시구 이후 “靈魂如有識, 應不故鄉還, 兩哀能繼志, 遺業必如前.”이 추가되어 있다.

大義眞炳然. 대의를 진실로 밝게 빛내셨고
 縲絏何足憤, 오락줄에 묶임이 어찌 분하지 않았으랴
 達獄卽是燕. 대구 옥이 곧 燕獄이었을 테지.
 色鴻逋海外, 鴻鵠에 색갈드니 바다 밖으로 떠나시어
 名節能自全. 그 이름과 절의를 스스로 온전케 하셨고
 遍交中華士, 두루 중화의 선비들과 어울리시며
 親書廣布傳. 친히 지으신 서책들 널리 퍼 전하셨지.
 要展經濟志, 經世濟民의 뜻을 펼치시고자
 買彼德興田. 저 덕흥보의 땅을 매입 하셨고
 聞風西渡客, 서풍을 듣고 객이 건너오면,
 奮袂後且先. 뒤에서 또 앞에서 분주히 소매 떨치셨다네.
 好事多戲魔, 좋은 일에는 戲魔가 많다고 하더니
 一夕奄升仙. 하루아침에 불쑥 신선계로 오르셨단 말인가.
 餘生無所托, 남은 생 기댈 곳 없어져
 執紼淚涓涓. 상여 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노라.

1905년 상소투쟁의 여파로 대구옥의 수인이 된 일을 계기로 渡海를 택한 이승희는 이후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주 일대를 누비다 봉천의 한 客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³⁸⁾ 시에서 언급된 燕獄³⁹⁾의 고사를 상기해보면, 안창제는 不事二君의 절의를 직접 실천하고자 옥사마저 불사했던 이승희의 생을 ‘大義’를 밝히려던 ‘망국의 충신’으로 형상화하고 있

38) 을사늑약 이후 이승희는 ‘적신들을 주살하고 늑약을 파기’(『韓溪遺稿』 卷1, 〈請誅賊臣罷勒約〉) 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당시 疏首였던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피체되었다. 대구 경찰서의 囚人이 된 그는 석방을 거부하며 옥중 투쟁했고 석방 이후 渡海를 결심한다(옥중에서의 투쟁 과정은 〈達獬日記〉(『韓溪遺稿』 卷6)에 자세하다). 1908년 해삼위로 건너간 뒤 이후 북만주와 남만주를 오가며 한중 공교운동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헌신하다, 1916년 봉천의 한 여관에서 생을 마감했다. 참고로 이승희는 당시 在滿지역 유림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지도자였다.

39) 통상 억울한 옥살이에도 절의를 굽히지 않은 상황을 燕獄에 비유한다. 전국 시대 齊 鄒衍이 燕惠王을 섬기다가 참소를 받고 옥에 갇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5월임에도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가 있다. 더불어 宋代 文天祥이 張弘範에게 포로가 되어 燕獄에 삼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나 끝내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피살되었다는 고사도 전한다.

다. 유인석과 유사하게 그의 삶을 여타의 수식이 아닌 ‘大義’라는 간명한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송은은 이를 이후의 행적과 연결하였는데 곧 이승희의 생애는 그것을 자신의 직분으로 여기며 이를 실천했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도해 이후의 그의 삶을 안창제는 ‘自全’으로 총결했다. 충절을 다할 나라와 임금을 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곧 이역으로 벗어나 ‘물욕에 얽매임이 없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하려’는 유자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⁴¹⁾

한편, 그의 만시는 이 시기 재만 한인 유림의 내부에는 실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상당부분 포진하여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²⁾ 하여, 안창제의 만시에는 직접 의병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던 의병 출신 문인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도 상당했다. 그 작품들은 일제의 감시와 여러 노선의 혼란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식민지 해방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열악하고 암담한 현실을 극복해내고자 노력하다 이내 散花해버린 그들의 죽음 또한 투영되어 있었다. 즉 그들의 삶과 죽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이역에서 순국한, 노구가 된 儒將의 죽음’으로 표상화 되었다.

40) 실제로 이승희는 왜 상소를 했나는 일본 순검의 심문에 “나는 일개 腐儒일 뿐이나 문자와 의리를 알고 있소이다. 상소는 곧 나의 직분이이다.(『韓溪遺稿』 卷6, 〈達雅日記〉, “余曰: 我一腐儒耳 但知文字義理, 上疏則吾職也”)”라고 말한 바 있다(한길로, 『대개 이승희의 「달페이기」의 창작 배경과 인물형상 연구』, 『영남학』 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154쪽). 이러한 이승희의 절의와 그곳에서의 행적을 깊이 탄복한 안창제는 이승희의 사후 遺體의 返葬을 적극 반대하기도 했다.

41) 李震相, 『寒洲集』 卷30, 〈書西厓柳先生主宰說後〉, “心無物欲之累而本性自全, 敬之功也.”

42) 그의 만시에 의병 계열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직접 대한독립단 활동에 동참한 것과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박장호·조맹선·백삼규 등과 교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주한 영남 지역 유림이 무장투쟁에 동참한 예는 이전에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계 이승희의 동삼성한인공교회에 참여했던 청도 출신의 伊山 芮大禧가 군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화폐를 위조한 사건에 동참한 일을 거론할 수 있다(이은영, 앞의 논문, 2012, 32쪽).

挽朴華南長浩 ⁴³⁾	화남 박장호를 애도하다.
少時志氣老尤堅, 王事勤勞四十年. 辛巳封章趨北闕, 丙申倡義在春川. 白頭山石磨刀久, 黑齒風潮保髮全. 未及出師先被禍, 斯民不覺淚淒然.	소싯적의 지기 늙어서 더욱 굳세어 나랏일 힘써 일한지 사십년 되었네. 신사년에 임금께 상소하며 북쪽 대궐로 달려가더니 병신년에 창의하여 춘천에 계셨지. 백두산의 돌을 칼로 간지 오래되었고 흑치의 풍조에서도 보발 온전하셨네. 出師에 이르지 못했는데 먼저 화를 입으셨으니 이 백성들 부지불식 눈물만 처연히 흘러누나.

이 시는 3.1운동 이후 봉천성 유하현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단의 도총재를 지낸 朴長浩(1850~1922)를 향한 만시이다. 송은은 박장호의 삶을 시들지 않은 志氣를 드러낸 것으로 총평하고 있다. 또한 인용한 남이 장군의 시구는 박장호의 기개와 기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언급인데, 송은은 남이 장군이 요동 정벌에 혁혁한 공을 올린 것을 상기하며 박장호 역시 이곳에서 상당한 공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⁴⁴⁾ 또한 흑

43) 『松隱遺稿』 卷1. 참고로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유림은 적극적인 척사 운동을 진행했는데 시에 나타난 신사년의 일은 곧 1881년 김홍집의 『朝鮮策略』 반입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신사척사운동에 화서의 문인 박장호 또한 동참했음을 알려준다. 이때 화서의 문인 洪在鶴(1848~1881) 역시 상소했는데 여러 상소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격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일로 疏首 홍재학은 능지처참형에 처해졌다. 병신년(1896)의 일은 단방령 시행일을 기일로 삼아 거병한 춘천의병진과 연관되는데 당시 박장호가 洪川에서 의병을 이끌고 유인석 의진에 집결한 사건을 이른다(박민영, 「화서학과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한국근대사연구』 10,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66쪽, 강대덕,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과 강원지역 전기 의병운동」, 『향토사연구』 8,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 40쪽).

44) 1910년 즈음 박장호는 유인석을 따라 현재 서간도 일대에서 의병을 이끌었고 주요 근거지는 長白·撫松·臨江縣 등지였다. 李鎭龍·趙孟善 등과 함께 한 그는 자치단체를 조직하며 농민구제에 힘썼고 독립군을 양성에 진력하며 구국활동을 이어갔다. 1916년 그들이 조직한 포수단이 평북 雲山에 진입하여 금광의 송금차를 습격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대한독립단은 순사 및 밀정들을 제거하고 주계소를 습격하기도 했으며 국내에 독립자금을 송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강대덕, 「華南 朴長浩의

치로 상징되는 변발변복을 거부한 채 과거 전통적인 의관을 유지했음을 부각하였는데 이는 송은이 긍정하는 유럽계 의병 노선의 기치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⁴⁵⁾ 시에서 박장호는 조선의 武道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무인이면서도 성리학적 전통을 고수하는 문인의 삶으로 표상되고 있다. 結句에서는 그의 죽음을 하나의 ‘禍’로 표징하면서, 당시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이끌었던 그의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 화근들까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⁴⁶⁾ 이렇듯 본 작품에는 ‘칼을 든 유자의 삶’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老將의 죽음’이 동시에 표상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평산 출신의 의병 원석 조맹선(1872~1922)의 만시에도 이러한 면모가 발견된다.

挽趙圓石孟善⁴⁷⁾ 원석 조맹선을 애도하다.

平山士氣正堂堂,	평산 선비의 기개 정히 당당했으니
圓石忠誠難可當.	원석의 충정과 진심을 당해내기 어려웠었지.
儒約曾參同討逆,	儒約에 일찍이 참여하며 동시에 역신들을 토벌했고

學統과 抗日獨立運動, 『의암학연구』 6, 의암학회, 2008, 103~113쪽).

45) 당시 안창제 인근에는 李石榮과 같은 영남 출신의 유럽 인사들도 존재했다. 이른바 이들 혁신 유럽계열의 인사들은 당시 두발과 복식을 바꾼 상태였고 수파나 송은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웠다. 위의 언급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술되었다(이은영, 「수파 안창제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한문학회』 25, 우리한문학회, 2011, 434쪽).

46) 기존 연구 및 보훈처에는 박장호의 죽음을 밀정에 의한 암살로 기술하였고 그 시기는 1922년 4월(2일·3일)로 기재했다(강대덕, 앞의 논문, 85쪽,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다만 당시의 보도를 참고해보면 그의 순국 시기는 1923년 5월로 판단된다. 다만 두 보도에서 사건 장소는 동일하게 撫順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날짜는 28일과 18일로 동일하지 않다(『每日申報』, 1923.05.31., 〈獨立軍 總裁가 被殺〉, “만주에 있는 독립과 도선인의 슈령으로 잇는 박장호(朴長浩)는 이십 팔일에 무순(撫順)으로부터 사리 가랑 되는 요령자(要領子)라는 곳에서 어니 도선스름에게 암살되얏더니 … 그를 죽인 스름은 청년단원인 듯 하더라” ; 『朝鮮日報』, 〈朴長浩씨의 被殺〉, 1923.09.09., “지난 오월십팔일 오후 세시 경에 중국의복을 입은 조선 청년 두 사람이 돌입하여 권총을 발사하여 즉석에서 참사하였는데 …”).

47) 『松隱遺稿』 卷1.

民憂常切急扶綱.	민생을 항상 절치부심하시며 황급히 버리를 돋우셨다네.
潛跡遼東多熱淚.	요동에서 종적 숨기며 누차 뜨거운 눈물 흘리셨고
藏兵朔北飽寒霜.	삭북에 의병으로 은신하시며 찬 서리 가득 맞으셨지.
未捷身亡君莫恨.	싸워보지도 못한 채 숨진 그대 한스러워 마시게,
復邦他日誦名芳.	나라 되찾은 후일에 빛나는 그 명성을 읊을테니 말이오.

시의 첫구는 이른바 서북 인사에 대한 그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평산 출신의 의병 李鎭龍(1879~1918)의 만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⁴⁸⁾ 즉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서북 인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차별과 배제 혹은 편견과 홀시로부터 벗어나, 이 지역 인사들의 義勇과 威儀를 시의 첫 면에 피력하며 그것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포착된다는 것이다.⁴⁹⁾ 수련과 함련은 1905년 大韓十三道儒約所를 조직하여 오적을 참하라는 상소 투쟁을 시작으로 의병을 일으킨 이후,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민심을 살폈던 그의 이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⁵⁰⁾ 경련에서는 그의 만주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저항과 고뇌를 “熱淚”와 “寒霜”으로 대비시키며 독립에 대한 그의 열정과 함께 온갖 역경 속에 전개된 그의 의병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죽기 전 그의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을 憤限과 鬱悶을 헤아려보며 차분히 그의 죽음의 갖는 의미와 상징을 응시하고 있다.⁵¹⁾ 그가 비록 스스로 승전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

48) 『松隱遺稿』 卷1, <挽李石大>, “平山壯士氣如山.” 참고로 이진룡은 일명 석대(錫大)·석대(碩大)로도 불렸다.

49) 손혜리, 「한문학을 통해 되돌아보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 『한국한문학연구』 76, 한국한문학회, 2019, 228쪽.

5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5 : 독립군 전투사(上)』, 고려서림, 1983, 185쪽.

51) 조맹선은 대한독립단의 총단장으로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핵심세력이었고 남북만주 및 노령에서 위상이 강해 후에 임정의 광복군 사령장에 내정되었을 만큼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독립군을 훈련하며 후일을 도모하던 중 길림성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승실사학』 45, 승실사학회, 2020, 19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앞과 같음).

하고, 나아가 독립된 조국을 만들어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진정한 伸冤의 길임을 보여주며 老將이자 老儒였던 그의 죽음을 향한 哀戚의 뜻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일제의 주구 林谷의 밀고로 寬甸縣에서 체포, 평양으로 압송되어 교수형에 처해진 海西名將 李鎮龍(『송은유고』에서는 李石大로 표기, ?~1918)⁵²⁾과 그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부인 禹씨를 애도한 시 또한 그들 삶의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⁵³⁾ 또한 의암의 문인으로 을미의병에 참여한 뒤 1910년 만주로 건너와 3.1운동 이후 결성된 대한독립단의 부총재를 역임한 白三圭⁵⁴⁾를 향한 만시에서도 유사한 詩意가 발견되었다.⁵⁵⁾

이렇듯, 안창제의 만시에는 의병 출신 유럽 인사들의 삶의 궤적 마디 마디에 담겨 있는 義氣를 숭고하게 다루면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역에서 맞은 분한 가득한 죽음을 향한 송은의 애탄을 구슬프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방 조국에서 그들의 義魂이 다시금 소환되기를 염원하는 그의 내심 또한 강하게 표출되었다.

52) 유인석의 문인인 그는 1907년 말 일본군을 격퇴하는 무훈을 세워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海西名將이라 불렸다. 이후 연해주로 건너가 십삼도의군에서 활약했고 1911년 서간도 寬甸縣으로 이주한 뒤 대한광복회 부사령관으로서 투쟁을 이어갔다. 밀고에 의해 피체된 그는 평양법원으로 이송되었고 1918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관전현에 머물던 부인 우씨는 이 소식을 듣고 자결했다(정제우, 「의암 류인석과 황해도 의병의 구국운동」, 『의암학연구』 16, 의암학회, 35~69쪽).

53) 송은은 시를 통해 그의 죽음을 “捨生取義”로 이름하고 부인의 죽음을 “殉烈”이라 명명하며, 춘추의 대의를 다시 세워 조국을 회복된다면 그 둘의 절의가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밝혔다(『松隱遺稿』 卷1, <挽李石大>, “男子舍生猶可貴, 夫人殉烈最難攀. 左海春秋修續日, 君家雙節必斑斑.”).

54) 평안도 泰川 사람인 그는 유인석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 1910년 만주로 이주하였고 3·1운동 당시 대한독립단 부총재가 되어 독립군을 이끌고 활약했다. 1920년 5월, 부하 김덕신과 함께 일군에 잡혀 환인현 沙尖子에서 총살당했다. 이후 장남 白仁海, 차남 白仁濟도 순국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위의 책, 186쪽. 박성순, 위의 논문, 185쪽).

55) 송은은 만시에서 ‘도를 지키던 서생이 일제의 포로가 되어 순국하고 말았지만 적들에 사로잡혀도 의기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그의 忠良을 기억하고 기려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내면을 드러냈다(『松隱遺稿』 卷1, <挽白溫堂三圭>, “曾爲衆薦時難造, 竟被虜擒氣猶仇. 衛道書生謀國死, 將來應有表忠良.”).

끝으로 그의 만시에 나타난 재만 한인 유림의 표상은 이역 생활의 곤궁함 속에서도 스스로의 신념과 소신을 관철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즉 ‘修身과 傳授에 헌신했던 유자’의 삶과 죽음이었다. 아래는 1910년 만주로 건너가 1924년 安東 接梨村(일명 接梨樹)에서 삶을 마감한 寧齋 李建昌의 동생 耕齋 李建昇(1858~1924)을 향한 만시이다.

挽李耕齋建昇⁵⁶⁾ 경제 이진승을 애도하다.

一夜東溟惡浪翻,	하룻밤 새 동쪽 바다에서 거센 파도 뒤집어 졌나니
漢冠何日掛都門.	漢冠은 어느 날 도성문에 걸리리오.
文章傾世兄難弟,	문장이 세상 놀라게 함은 난형난제였고
忠孝傳家祖繼孫.	충효가 가문에 전해져 선조의 정신 손자가 이었다네.
十載殷薇飢可療,	십년 간 殷땅에서 고사리 캐어 주름을 면하시며
中宵袁枕淚留痕.	한밤의 긴 베개에 눈물 자국 남기셨었지.
吾兄泉下應相待,	황천의 우리 형님께서 응당 상대할 것이니
鬱抱邀公更一論.	울적함 안고 공을 맞으며 다시금 한 말씀 나눌 것이네.

耕齋는 사실 이견창만큼의 명성은 아니나 문장을 인정받고 있던 명문가 출신의 인재였다. 하지만 惡浪과도 같던 당시의 현실을 목도한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독서와 농사에 힘쓰는 ‘耕齋居士’의 길을 걷게 된다.⁵⁷⁾ 실제로 경제는 1910년에 결행한 해외 이거에 대해, ‘을사년에 죽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것을 구차하게 사는 苟活라 여겨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⁸⁾ 이에 송은은 그의 이러한 행적을 병인양요 당시 순절을 통해 우국충정을 전한 선조 李是遠·李止遠의 얼을 계승하려는 의지와 연결하였다. 이어 송은은 13년이 넘는 그의 만주 생활을 ‘飢와 淚’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다. 즉 飢

56) 『松隱遺稿』卷1.

57) 이은영, 앞의 논문, 2012, 18쪽.

58) 李建昇, 『海耕堂收艸』, 『耕齋居士自誌』, “吾既不死於乙巳, 今又苟活爲日本臣民不忍爲也. 我今去耳.” (천병돈, 「경제 이진승의 민족정신」, 『양명학』 40, 한국양명학회, 2015, 154쪽 재인용)

는 고사리를 캐며 절의를 지키던 백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궁핍하고 곤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상황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또한 淚는 당시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나라에 대한 우려와 가족 및 친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등을 복합적이고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시구로 활용되었다. 이견승의 죽음이 작자 자신에게 더욱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그는 다름 아닌 고인이 된 자신의 형 안효제의 다정한 이웃이자 든든한 벗이었기 때문이었다.⁵⁹⁾ 결국 만시에서 이견승의 생애는 주립과 눈물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유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修身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유자 본연의 삶에 충실했던 인물의 죽음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挽李敬可愚⁶⁰⁾ 경가 이우를 애도하다.

甲宴未開回甲年,	회갑연 열지 못한 회갑년에
居然其奈化升仙.	어찌 이리도 갑자기 신선으로 승화하셨나이까.
書農元是吾家事,	책 읽고 농사 짓는 것은 본래 우리의 일이었고
勤儉由來世業傳.	근검의 유래는 世業에서 전해진 것이지.
忍聽薤歌侵曉月,	애써 듣고 있던 葬送曲[薤歌] 새벽달에 닿을 때
可憐朋淚灑秋天.	가련해진 친구의 눈물 가을 하늘에 뿌렸다고요.
嗟君莫恨殊方歿,	아! 그대 이역에서 잠들을 한탄 마시게나
早晚還鄉耐厥先.	머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선영에 합사되잖소.

愚齋 李光世(1875~?)는 만주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우로 판단되며 만시 속의 그는 다름 아닌 ‘勤儉’한 유자였다. 안창제의 만시 속에서 이광세의 삶은 본분에 충실하고 가업을 전함에 전념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한 유림의 삶이었다. 송은은 땀 흘려 일하고 근검하며 청빈한 삶을 이어

59) 수과는 「接梨樹酬李上舍建昇(二首)」(『守坡集』卷1)에서 “업을 잃은 유민들은 발 갈아 씨 뿌리기 족하나, 자취 숨기며 떠난 객들에겐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구려(失業 流民耕稼足. 潛踪逋客姓名存.)”라며 서로의 처지를 격려하고 동지애를 표출한 작품을 남긴 바 있다.

60) 『松隱遺稿』卷1.

가던 그의 만주에서의 생활을 담담히 어기로 그려내고 있었다. 즉 그의 구체적인 일상을 소환하여 그의 생애를 가늠하게 만들고 있다. 시에 나타난 것처럼 이광세의 삶은 그저 묵묵히 주경야독하며 본인의 ‘근본’에 힘쓰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실천하고 또 고뇌하던 가장 지근거리의 벗으로 묘사되고 있다. 무형의 님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향에 돌아가는 知舊의 죽음을 지켜보며 큰 哀愁에 젖은 자신을 그리고 있는 미련은, 함께 鄉愁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게 만든다.

挽鄭芸圃⁶¹⁾ 운포 정은을 애도하다.

名祖賢仍又見公,	명망 있는 선조의 후손[賢仍]으로 또 공을 보았나니
國亡當日去吾東.	망국의 당일에 우리나라를 떠나셨다네.
生乎亂世終無累,	난세에 태어났지만 끝내 연루됨이 없었고
詩以鳴時早有工.	시로 당대를 읊을 때에도 일찍이 공교함이 있으셨지.
肖胤不移今世態,	자식들도 지금의 세태를 따르지 않고
諸孫應守古家風.	여러 손자들도 옛 가풍을 마땅히 지키고 있다네.
餘生考德今何處,	살아 계신 考德들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있으랴.
滿滿哲人自此空.	남만의 철인은 이로부터 빈자리가 되어버렸는데.

송은의 제문에 따르면 그는 청주 출신의 儒醫로 추정되고, 明祖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본관은 寒岡 鄭述 등을 배출한 淸州로 판단된다.⁶²⁾ 鄭灤은 1910년 국치 직후 만주로 건너와 삼대가 함께 생활하던 인물로 송은과 매우 각별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송은은 그를 평생의 벗이자 ‘肚肝相吐’의 관계라고 밝히기도 했다.⁶³⁾ 그의 시에서 鄭灤은 시에도 능하지만 그것을 난세에 쓰지 않고 그것에 연루되지 않는 ‘無累’를 실천한 인물로 그의 죽음은 곧 ‘哲人の 죽음’으로 형상화되

61) 위와 같음.

62) 『松隱遺稿』卷2, 〈祭鄭芸圃文〉, “嗚呼! 我公淸州華閥藥翁.”

63) 위와 같음, “一承公顏, 平生之親, 喜逢惜別, 晝以繼晨, 肚肝相吐, 道義交陳, 擬將結社, 誓共甘辛, 已矣已矣!”

었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 철인의 생애는 다름 아닌 자신의 가치를 고결히 간직하고 어떠한 세태에도 ‘연루’되지 않는 청정한 유자의 삶이었다. 또한 그는 자손들을 잘 가르쳐 시비를 가리게 하고 이역의 풍습에 물들지 않으며 오래된 家風을 온전히 전수했던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철인이자 考德은 바로 이러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즉 초야에서 自靖하고 潔身하면서 선대의 전통을 후세들에게 고이 전하는 그의 ‘일상’ 역시 송은에게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 生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저물어 가는 유학의 시대 속에서 빛나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挽悔難再從叔鐵⁶⁴⁾ 재종숙 안철을 애도하다.

宜庵孫子有吾公, 公是先行最末翁. 十載荊園才數舛, 三韓史譜古今通. 一身福履如圓月, 闔族惇和保古風. 父老盡爲仙化去, 天涯踟立淚無窮.	宜庵의 손자 가운데 우리 공이 있으셨으니 공께서는 先行後敎하셨던 가장 마지막 옹이셨다네. 십년 간 가시나무 울타리에서 그 재주 수차례 어그러졌으나 『三韓史』로 엮으시어 고금을 통하셨지. 일신의 복록은 둥근 달과 같았으니 온 가족 도탑고 화목하며 옛 풍속 지켰다네. 온 가족께서 다 되시어 신선으로 변해 떠나버리셨나니 천애에서 웅크리고 서서 눈물만 끝없이 흘러노라.
--	--

이 시기 한인 유림의 만주 이주는 友堂 李會榮의 예처럼 일가족이 떠나 온 형태가 상당했는데, 송은은 형 수과와 위에서 언급된 재종숙 安鐵 및 삼종숙 安鉞과 함께 만주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시에 따르면 안철은 거듭 과거 급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는 荊園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역사 저술에 천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삶을 ‘先行後敎’, 즉 선인의 행동을 들어 후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압축한 송은은, 화목한 가정을 일구면서 고향을 지켜나간 만주에서의 삶을 다시금 재구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국내에서의 거듭된 좌절에서 벗어난 이역에서의

64) 『松隱遺稿』卷1. 참고로 宜庵은 가문의 선조인 安德文(1747~1811)을 말한다.

삶은, 오히려 등근달처럼 밝은 것이었다. 이는 선조의 유훈을 계승하고 가족들과 함께 옛 풍조를 계승하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유자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시의 창작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고 안창제의 만시는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고 있었다. ‘죽은 이를 과도하게 찬양하고 나아가 허위와 조작에 가까운 의례적 수사와 같은 과거의 폐단을 반복’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⁶⁶⁾ 대신 그는 인물의 주요 행적을 추고하면서, 매천과 유사하게 ‘喪事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슬픔’을 부각하며 자신의 悲慨를 대단히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다.⁶⁷⁾ 즉 안창제는 만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고인의 구체적인 일상을 시 속에 형상화하여 그들의 행적을 조명한 뒤 자신의 鬱恨을 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순한 찬양이나 추상적 언술을 지양하고, 망자의 행적과 그 지취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어를 택하여 그의 삶을 기리고 망자를 위로하려는 진심을 시를 통해 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수사가 화려하고 풍부하지는 않지만, 매우 간결하고 압축적인 수사를 통해 그 인물의 행적과 평생을 품어온 삶의 지취를 분명히 드러내는 만시를 창작했던 것이다.

65) 일면 평범한 듯 보이는 이들 일생을 다룬 그의 기술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古風을 전수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그들의 삶 또한 이른바 공교운동과 같은 조직적인 유교운동과 의병 투쟁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과 접맥된다. 결국 이들을 향한 만시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처럼, ‘어떻게 실천하여 전할 것인가’를 고뇌하며 이역으로 건너온 그들의 苦勞했던 생애를 기억하고 그 일생을 숭고하게 받아들이며 또 되새기려는 의지의 발로와도 같았다. 이는 삼중숙 石蕉 安鉉의 삶을 ‘가세의 빈한에도 固窮을 전했다.’라고 평한 것에도 연결된다(松隱遺稿』卷1, 〈挽石蕉三從叔鉉〉, “貧寒家勢固窮傳”).

66)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 태학사, 51쪽.

67) 김진옥, 「매천 만시의 문예미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15쪽.

IV. 결론

만시는 상투적인 형식의 관습적 실용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작품들이 가장 극대화된 감정의 동요와 애탄 속에서 창작된다는 특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즉 내면에 일렁이는 극도의 슬픔과 感傷·비에와 통한을 문자의 형태로 構造해야 하기에, 여타의 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작자의 깊은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또한 만시는 특정 인물의 죽음을 평가하는 수사 속에 자신의 주관과 가치관 또한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평소 작자의 내면에 각인된 신념 또한 살필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안창제의 만시에도 이러한 특성이 매우 잘 드러나 있었다. 우선 그의 시적 대상이 된 인물 대다수는 가족 및 친지를 포함, 만주에서 함께 風餐露宿했던 지우들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는 한편 쇠락해 가는 유도의 전통을 스스로라도 계승하고 전수하고자 만주로 건너온 동지들이었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송은의 출신지와 학맥과는 다소 이질적인 인물들도 있었다. 즉 만시의 대상은 여러 지역에서 온, 또한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는 인물들이었다. 바로 이 사실은, 만주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보여준다. 즉 긴 시간 분화와 반목을 이어갔던 각각의 유학 학파 구성원들이 비로소 진지한 통합과 협력을 모색하던 장소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안창제가 다루는 만시의 대상 중 상당수가 만주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이었기에 그가 목격하고 또 서술하고 있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客死’였다. 하지만 안창제의 만시에 담긴 그들의 죽음은 이역에서 생이 마감된 이산인의 서러운 죽음으로만 묘사되거나 언술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신하로서의 절의의 지킨 ‘遺臣의 죽음’·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이내 산화해 버린 ‘儒將의 죽음’·自靖과 潔身에 진력하며 선조와 선유의 학통을 전수하던 ‘儒者의 죽음’으로 표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안창제의 만시 속 인물들은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보존, 아주 한인의 안정과 정착, 自靖을 통한 자기완성과 家學 및 道統의 전수’에 마지막까지 헌신

하다 생을 마감한 재만 한인 유림의 초상을 담고 있었다. 안창제는 한 개인의 탁월한 업적이나 성취에 주목하기보다, 그들 구체적 행적과 내면을 시를 통해 그려내고 있었다. 고인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지양하고 그들의 삶과 지취를 주시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시어’를 통해, 고인의 삶이 주는 의미와 그들의 죽음이 웅변하고 있는 의의를 온전히 또 분명히 드러낸 후 자신의 비통을 토로하는 방식이었다.

안창제의 만시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진 한국 만시 전통의 사실상 마지막 면모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역에서 숨을 거둔 한인 유림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비애가 대단히 압축적이고도 선명히 펼쳐져 있었다. 지난 시기의 상투성과 당파성을 벗어나 동지들의 죽음을 자기화하여 그 진정을 표출했고, 무엇보다 그들에 의해 한국 성리학의 ‘義理’가 계승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망자들의 겪었을 통환을 시 속에 형상화시켰다. 이는 곧 그의 만시가 갖는 색채이자 근대기 만주 일대에서 창작된 만시의 주요 특징이자 층위였다. 다른 면모를 담고 있는 근대기 만시의 총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필자의 향후 과제로 삼는 바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4월 2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松隱遺稿』, 『韓溪遺稿』, 『毅菴集』, 『承政院日記』, 『皇城新聞』.

- 김봉근, 「嶺南地域에서의 蘆沙學派와 寒洲學派의 成立과 學說交流」, 『공자학』 14, 한국공자학회, 2007, 65~94쪽.
- 김진옥, 「대천 만시의 문예미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93~119쪽.
- 김형석 등 5명, 「근대전환기 한국 종교·미학의 성찰과 전망」, 『인문학연구』 5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67~199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上)』, 고려서림, 1983.
- 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승실사학』 45, 승실사학회, 2020, 179~199쪽.
- 송기섭, 「의암 유인석의 亡命路程에서의 保華와 國權回復運動 고찰」, 『의암학연구』 14, 의암학회, 2016, 139~177쪽.
-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 태학사, 49~80쪽.
- 이은영, 「송은 안창제의 서간도 망명시 연구」, 『대동한문학』 41, 대동한문학회, 2014, 495~525쪽.
- , 「20世紀初 儒敎知識人의 亡命과 漢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鄭濟遇, 「李鎭龍 義兵將의 抗日武裝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73~97쪽.
- 조 광, 「개항 이후 유학계의 변화와 근대적응 노력」,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87~125쪽.
-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245~274쪽.
- 催丙桃, 「만주사변 발발 직후 재만 조선인의 수난과 국내 민족주의 진영의 구호활동」,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천병든, 「경제 이진승의 민족정신」, 『양명학』 40, 한국양명학회, 2015, 151~176쪽.

松隱 安昌濟의 挽詩에 나타난 '在滿' 유림의 표상(한길로)

-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 동방한문학회, 2012, 113~151쪽.
- 한길로, 『대계 이승희의 「달폐일기」의 창작 배경과 인물형상 연구』, 『영남학』 7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137~164쪽.
- _____, 「松隱 安昌濟의 在滿 시기의 이거와 교유시 고찰」, 『영남학』 8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a, 287~316쪽.
- _____,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b, 155~180쪽.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nu.ac.kr>)

국립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Confucian Scholars in Manchuria of Song Eun Ahn-Changje's Requiem(挽詩)

Han, Gil-ro

Song Eun Ahn-change is a modern Confucian scholar from Uiryeong, Gyeongsangnam-do. In 1910, he moved to Manchuria with his family to avoid Japan's forced annexation. Ahn Chang-je, who lived there for 22 years, died there due to the chaos that occurred during the Manchurian Incid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space of 'Manchu' became the center of his life and literature, and the genre that occupies the largest stake in his literature was "Requiem(挽詩)." In other words, Requiem was one of the important central axes of his poetry world. Most of the subjects of literature were Confucian scholars who migrated to Manchuria. A notable point is that the characters' origins and academic trends were not uniform. This soon contained one aspect of Korean Confucian scholars, who had been in conflict with each other for a long time,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a space called Manchuria and also tried to promote the future together. His Requiem also revealed a very special literary color in terms of content, with most of Requiem's objects being "displaced" so their deaths he described were basically "died in a foreign land." However, Ahn Chang-je did not describe their lives and deaths only as the deaths of strangers who continued their lonely lives in this area. Their deaths were largely represented as 'death of old subjects for fidelity, death of Confucian soldiers for independence, and death of Confucian people for pure

learning'. In short, His Requiem had the characteristic of conveying the life and will of the deceased through concise and accurate terms rather than excessive praise. The work raises the need for an academic analysis of Requiem in the modern era.

keywords :

Song Eun - Ahn, Chang-je(松隱 安昌濟), 『Songenyugo(松隱遺稿)』, Requiem(挽詩), Korean Confucian scholars in Manchuria, Modern Sino-Korean Literary

